



올해 예능계도

‘국방·음방’ 대세

이색 콘텐츠 미흡 ... 장수예능 견제

이경규·박수홍 등 양년 스타 부활

예능 장르를 빌려 표현하자면, 올해 예능가도 참으로 ‘바리아터’했다. 예능가에는 올해도 옛 추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복고 콘텐츠뿐 아니라 왕년의 스타들이 대거 부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쪽에서는 이색적인 소재와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못볼 터지듯 쏟아졌다. 하지만 ‘음방’, 즉 음식 방송과 음악 방송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트렌드는 자리 잡지 못했고, 장수 예능은 견제함을 과시했다.

◇‘국방’ ‘음방’ 올해도 인기·새 트렌드는 안 보여 = 올해도 사람들은 TV 앞에서 군침을 흘렸다.

‘백종원의 3대 천왕’(SBS) ‘집밥 백선생’(tvN) ‘수요미식회’(tvN) ‘냉장고를 부탁해’(JTBC) ‘한식대첩’(tvN) ‘오늘 뭐 먹지’(tvN) ‘맛있는 녀석들’(코미디TV) 등 술한 음식 프로그램이 시청률이나 화제성 면에서 자기 몫을 했다.

리모컨을 돌려도 노래가 계속될 정도로 음악 방송도 견제했다. 특히 국가스텐 하현우 ‘음악대장’을 배출한 MBC TV ‘복면가왕’ 독주가 빛났다.

‘판타스틱 듀오’(SBS) ‘듀엣가요제’(MBC) ‘보컬전쟁 : 신의 목소리’(SBS) ‘노래싸움 승부’(KBS2) 등이 잇달아 등장했지만,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과학(KBS2 ‘트릭 앤 트루’), 인테리어(JTBC ‘한집 출제 새집다오’·tvN ‘내방의 품격’·tvN ‘렛미홈’), 여행(KBS2 ‘배틀트립’·‘수상한 휴가’) 등 새 소재와

▲ 복면가왕 ‘음악대장’ 하현우

포맷을 장착한 프로그램이 쏟아졌지만, 새 유행을 선도할 만한 콘텐츠는 딱히 없었다.

그 사이 MBC TV ‘라디오스타’와 ‘무한도전’, KBS 2TV ‘1박 2일’ 등 전통적인 강자들은 시청률이 나 화제성 모두 최정상을 지키는 저력을 보여줬다.

◇박수홍·탁재훈·이경규 등 새로운 전성기 = 왕년의 예능 스타들은 새롭게 부활했다.

근래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던 박수홍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요새 손대는 것마다 잘된다”고 고백할 정도로 SBS TV ‘미운 우리 새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도박 문제로 물의를 빚었다 복귀한 탁재훈과 이수근도 “제작발표회를 너무 자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너스레를 떨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혹은 패널로 입담을 과시 중이다.

이경규는 진행자가 아닌 게스트로 활발히 출연하면서 다시금 주목받았다. 특히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선보인 이른바 ‘늑방’(누워서 하는 방송)은 장안의 화제가 됐다.

‘호랑나비’ 가수 김흥국도 ‘흥규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능에서 환영받았다. SBS TV ‘불타는 청춘’의 김국진과 강수지 연애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1세대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는 MBC TV ‘무한도전’ 특집 프로젝트를 통해 16년 만에 재결합했다.

◇인터넷 방송 접속 시도는 많았으나 =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성공에 주목한 방송국들은 올해 유독 쌍방향 소통을 강조한 프로그램을 앞다퉈 내놓았다.

스타 재능기부 흡수방 방송인 KBS 2TV ‘어서쇼 SHOW’와 누리꾼 투표에 따라 극과 극 여행을 하는 SBS TV ‘꽃놀이패’ 등이 등장했으나 반응은 미적지근한 편이다.

드라마에 이어 예능도 웹툰을 적극 끌어들이는 점도 기억할 부분이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이말년과 MBC TV ‘나 혼자 산다’의 기안84, SBS TV ‘런닝맨’의 조서 등 웹툰 작가들도 다양한 예능에 얼굴을 비쳤다. ‘무한도전’은 급기야 릴레이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연말 방송가도 흔들어 놓았다. 시류에 민감한 예능 프로그램들은 저마다 국정농단 의혹을 소재거리로 삼았고, 특히 그동안 잠복했던 개그 프로그램이 정치 시사 풍자에 앞장섰다.

◀집밥백선생

▼SNL ‘최순실’ 패러디

“망가지는 역할 두렵지 않아요”

코믹 연기로 돌아온 하지원

영화 ‘목숨 건 연애’ 14일 개봉



맑고 주름 없는 건강한 피부와 보는 사람까지 흐뭇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미소. 외모만 보서는 내년에 불혹을 앞둔 데뷔 20년 차 여배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12일 서울 삼성동에서 만난 배우 하지원에게 동안 비결부터 물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힘들 때까지 하지는 않아요. 너무 열심히 힘들게 운동을 하면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주름살이 생기거든요. 평소 스트레칭을 주로 하고, 2년째 검무를 배우고 있어요.”

하지원은 오는 14일 개봉하는 영화 ‘목숨 건 연애’에서 허당 추리소설 작가 한제인 역을 맡아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그동안 드라마 ‘기황후’ 등에서 주로 강한 역할을 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귀엽고 순수 같으면서도 세시하고, 정의로운 인물로 나와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아 긴장될 때마다 냄새 독한 방귀를 똥내며 주변을 초토화한다.

하지원은 “망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고, 전작들이 무거운 캐릭터여서 가벼운 코미디를 해보고 싶었다”면서도 “저는 가족들과도 절대 방귀를 트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원은 한제인 캐릭터와는 실제 닮은 듯 보였다.

“집에 있으면 저도 편한 옆집 언니 같은 모습이에요. 인간적이고 털털한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또 한제인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약간 헛똑똑이 끼가 있잖아요. 저도 덩벼거리는 스타일이예요. 지갑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해외 팬 미팅을 갔다가 호텔에 옷을 두고 왔는데,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생각난 적도 있었죠.”

‘목숨 건 연애’는 지난해 촬영을 마치고 당초 올해 4월 중국과 동시 개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 개봉은 끝내 무산됐다.

개봉 전에는 뜻하지 않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불똥이 튀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부과에 갈 때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지원의 이름도 함께 거론된 것이다. 길라임은 하지원이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연기한 여주인공 이름이다.

하지원은 그러나 제작보고회에서 “다음에는 한제인 이름은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등 의연하게 대처해 주목받았다.

“제 성격상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떡하나?’ 고민하기보다 해결책을 찾는 스타일이지요. 영화 개봉 전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잘되겠지’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길라임 논란 때도) 제가 먼저 소신 있게 발언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죠.”

사랑과 일을 병행할 생각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라는 물음이 되돌아왔다.

“저는 두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잘 못하는 스타일이예요. 한 작품만 생각하죠. 지금 제가 회사(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직원들과 회의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외롭거나 하지는 않아요. 연말에는 엄마와 여행을 갈까 생각 중이죠.”

하지원은 ‘목숨 건 연애’에서 전백림과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눈다.

“그동안 조금씩 영어공부를 했어요. 할리우드 진출요? 하하. 기회가 되면 가야죠.”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철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제나 봄날>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00 월화드라마 <불아성>(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특선다큐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55 닥터 365(재)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특별생방송 가장 착한 선물 나눔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코스 가요1번지 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재)	00 1대 100 (재)	20 문화사색 (재)	
2	00 TV 쇼 토포명품 (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폭력 30 꾸러기 식사교실	
3	00 감성애니 하루 (재) 05 사람과 사람들 (재) 55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똑? 똑! 키즈스쿨 55 음가 쇼타라 2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재)	00 MBC 뉴스 10 2016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애 한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00 월화드라마 <불아성>	00 월화드라마 <남만닥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살림하는 남자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강연 100℃ 라이브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아시아인속스포츠 - 몽골 생방송대회>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비그 07:30 로보가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당 유치원1~3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피스 09:30 이말!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닭곰탕과 굴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2:40 지식채널e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생명의 섬터 순천만>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캐니멀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레빗 15:20 아웅명명 귀여워(재) 15:35 오솔 상자2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부름미즈(재) 16:45 덩동당 유치원1~3(재) 17:30 로보가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통가 족의 비밀 요리> 20:50 세계테마기행 <도시본색 홍콩, 마카오 - 시간 산책, 오래된 홍콩> 21:30 한국기행 <도전! 낙도의 하루> 21:50 EBS 다큐프라임 <스무살, 살아남은 자의 슬픔> 22:45 리얼극장-행복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24:10 특집 국민공감콘서트 대한민국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가뭄을 잡고 보면 의외로 쉬울 것이다. 60년생 합리적이야만 설득력을 갖게 된다. 72년생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84년생 막연한 미련을 버리고 결단성 있게 정리해버려야 추진력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2, 68	午	42년생 열떨결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54년생 기왕이면 호환성을 따는 것을 선택하자. 66년생 파다한 징후만 제대로 감지하더라도 충분히 면책할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기회를 얻는다. 행운의 숫자 : 18, 62
丑	49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한다면 실수하지 않으리라. 61년생 전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73년생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야 할 판세에 이른다. 85년생 본분을 잊어버린다면 곤혹스러움에 처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2, 59	未	43년생 어느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55년생 판세를 좌우하는 이변이 분명히 보인다. 67년생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79년생 팔자조를 이동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63, 79
寅	50년생 예기치 못한 판세로 난감한 입장에 놓이리라. 62년생 미리 준비해 두어야만 차질이 없으리라. 74년생 용처가 있을 것이니 똑똑히 봐 두어야 할 것이다. 86년생 부수적인 일이 번거롭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04	申	44년생 주관을 버리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56년생 예견되는 위험은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8년생 알맞은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음을 알라. 80년생 중차대한 것에 신경쓰다가 종 된 것에 소홀히 할 수다. 행운의 숫자 : 55, 10
卯	51년생 삼사일언 한다면 크게 이루지 못하더라도 실수는 면하리라. 63년생 임시적인 미봉책은 화를 부른다. 75년생 본질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87년생 과욕은 곧 어리석음을 낳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7, 51	酉	45년생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으니 정답은 글말이다. 57년생 엇비슷하여 낮고 못함을 정하기가 어렵다. 69년생 세심하게 정리 정돈해야 할 때다. 81년생 국량이 조정될 수 있으니 운로를 참고한 후 진퇴를 결정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84, 56
辰	40년생 원하게 도약해야 할 때다. 52년생 진행한다 해도 차질은 없겠다. 64년생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76년생 현재의 국세로는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다. 88년생 의외의 장에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7, 46	戌	46년생 모두 차치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미혹되어 제대로 걸러들면 곤장 후회하게 될 것임을 알라. 70년생 일상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있으리라. 82년생 예외로 치부해 왔던 바가 중심에 서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3, 21
巳	41년생 다 알게 되어 있다. 53년생 오랜 세월 속의 열정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겠다. 65년생 변화의 원인이 발생한다. 77년생 협조자를 자칭하는 이가 나타나는 판국이다. 89년생 울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잘 살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2, 07	亥	47년생 평상시에 아는 바대로만 행하면 그만이다. 59년생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71년생 중용의 입장에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다. 83년생 시작과 끝이 같아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0, 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연” ☎010-9790-8237			